

몇 가지 재배방법이 털부처꽃(Dwarf Pink) 유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연수호¹, 이상인¹, 정미진², 조주성³, 이철희^{3*}

¹충북대학교 축산·원예·식품공학부 대학원생, ²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연구사,

³충북대학교 축산·원예·식품공학부 교수

Effect of Several Cultivation Method on Growth of *Lythrum salicaria* L. (Dwarf Pink)

Soo Ho Yeon¹, Sang In Lee¹, Mi Jin Jeong², Ju Sung Cho³ and Cheol Hee Lee^{3*}

¹Graduate Student, Division of Animal, Horticultural, and Food Sci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²Researcher, Useful Plant Resources Center, Korea National Arboretum, Yangpyeong 12519, Korea

³Professor, Division of Animal, Horticultural, and Food Sci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털부처꽃(*Lythrum salicaria* L.)은 7~8월에 최산꽃차례로 붉은 자주색의 꽃이 피며, 밀원식물로 이용된다. 또한 예로부터 발효해서 술로 마시고 잎은 채소로 식용하였으며, 식중독 치료 및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이다. 한국, 중국, 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등의 습한 지역에 분포한다. 본 연구는 다방면으로 이용이 가능한 털부처꽃을 관상용 소재로 개발하기 위한 최적의 유묘 재배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유리온실 내에서 2019년 4월 27일에 종자를 파종하여 8주간 육묘하였다. 파종 용기는 162, 200 및 288 트레이로 달리하였으며, 토양 실험은 원예상토와 피트모스:펄라이트 3:1, 4:1 혼용토를 사용하였다. 파종립수 실험은 200구 트레이에 셀 당 1, 2, 4 및 6립으로 달리하였고, 추비는 hyponex (6.5-6-19)를 0, 250, 500, 1000 mg · L⁻¹의 농도로 출아 후 2주 간격으로 총 3회 엽면시비하였다. 또한 차광 실험은 0, 55, 75%로 설정하였다. 대조구는 200구 트레이에 원예상토를 충진하고 셀당 1립씩 파종하여 무차광 조건에서 육묘하였으며, hyponex 500 mg · L⁻¹를 추비하였다. 연구의 결과, 파종용기에 따른 털부처꽃 유묘는 셀 당 토양의 양이 가장 많은 162구 트레이에서 왕성하였다. 토양 종류별 실험은 원예상토 단용구에서 모든 생육이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며, 피트모스와 펄라이트의 혼용토에서는 생육이 억제되었다. 파종립수에 따른 초장의 유의적인 생육 차이는 없었으나, 전반적인 생육은 1립 파종에서 우수하였다. 한편 2립 또는 4립을 파종구에서 비교적 생육이 양호하고 풍성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 관상적 이용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추비처리는 hyponex의 농도가 가장 높은 1000 mg · L⁻¹ 처리구에서 유묘의 생육이 가장 양호하였고, 500 mg · L⁻¹ 처리에서는 무처리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차광처리는 털부처꽃의 유묘 재배시 전반적인 생육을 증가시켰으며, 55% 차광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결론적으로 털부처꽃의 육묘는 162구 트레이에 원예상토를 충진한 다음 셀 당 2립 또는 4립을 파종하고 55% 차광 조건에서 재배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추비는 hyponex 1000 mg · L⁻¹를 처리하는 것이 양묘 생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자생식물, 천굴채, 부처꽃과, 파종 용기, 토양, 파종 립수

[본 연구는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신 관상식물(new ornamental crops) 고품질 재배 기술 개발, KNA 19-C-53”의 사업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E-mail: Leech@cbnu.ac.kr, Tel: +82-43-261-2526